

## 20세기 동양모드의 변화 연구

조 영 아 · 유 혜 영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 A Study on the Oriental Mode in 20th Century Fashion

Young-ah Cho · He-Young Yu  
Dept. of Clothing Design, Graduate School of Industrial Arts, Hong-ik University  
(2001. 3. 23 투고)

####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arrange and analyze the Oriental Mode in 20th century fashion and to clarify that Oriental dress and its ornaments appearing as the main subject of Occident fashion gradually.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Oriental Mode in 1900-1950s was prescribed as the 'Orientalism' to be expressed Occidental imperialistic viewpoint. Therefore, the Orient was used as the simple recording mark of the imperialism product or commercial motive and it was reflected in fashion.

Second, it was explained in 1960-1970s as the 'Folklore Orientalism' that focus was moved into the folklore costume of Orient.

Third, in 1980s, 'Ethnic' was conspicuous that reflected the traditional costume in the area of non-christianity. Especially, it was the decade that the Middle East attracted attention.

Fourth, Oriental Mode in 1990s appeared as the 'Fusion' that Oriental and Occidental elements were mixed and compromised on equal terms.

Fifth, it was expressed as a word 'Zen' that had natural fiber, moderate color and silhouette to be most basic and concise about human body at the end of 1990s.

This study could confirm that the center of fashion was being converted into the Orient gradually. This may be understood as the pluralistic culture phenomenon. Namely, eclectic principle to recognize mutual style and individualistic nature and to utilize and mix was made, and this brought the conversion into Oriental sense of value.

Key Words : Oriental Mode, Orientalism, Folklore Orientalism, Ethnic, Fusion, Zen  
동양모드, 오리엔탈리즘, 포클로어 오리엔탈리즘, 에스닉, 퓨전, 젠

## I. 서론

다중주의적 성격을 갖는 문화는, 상이한 문화간 접촉으로 문화변용(Acculturation)을 일으키고 이를 통해 문명의 변증법적 진화<sup>1)</sup>를 이루어내는데 특히, 동·서양 교류로 인한 서양복식에 대한 동양복식의 특성과 요소의 전파는 서양 패션이 다양하게 변화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이후 동양모드는 서구 패션 디자인의 한 요소로 꾸준히 영향을 미쳐왔으며, 점차 그 중요성이 커지면서 20세기 말 현대복식 디자인의 주요 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패션, 건축, 디자인 등의 분야는 물론 음식이나 기업의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폭 넓게 나타난다.

이는 과거 동양에 대한 서구중심의 편향적 시각이 20세기 말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 들어서면서 근원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근대 서구의 이성애 의한 자연과 인간의 이분법 대신 천인합일(天人合一)을 강조하는 동양의 유기체적 사유방식이 주목을 받게 되었고, 조화와 자아완성에 목표를 둔 동양의 '덕(德)윤리'가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다. 또한, 선(禪)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지금 이 순간의 '찰나(刹那)적'이고 '유동적'인 의식과 느낌에 관심의 초점이 집중되기도 한다.<sup>2)</sup> 결국, 동양적 가치관에 관한 논의는 동양의 사상과 문화가 서구 문화의 한계를 극복하는 돌파구의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서 동양 뿐 아니라 서구에서도 새롭게 부각된 공통의 관심사가 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현대 동양모드를 체계적으로 정리·분석하고 그 변화 과정을 통해 점차 동양 복식이 서양 패션의 주요 주제로 등장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는 또한, 현재의 동양모드가 한시적인 유행현상이 아닌 변화와 생명력을 지닌 패션의 주체로 거듭 발전하기 위한 기초 연구자료로써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요 시대별 특징을 분류하고, 동양 혹은 동양 복식의 영향을 기술하는 복식사 문헌, 신문, 잡지, 정보지 분석을 통해 고찰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시기적으로는 현대 즉, 1900년대부터 최근 자료까지로 정하였고, 지리

적으로는 동양을 터키 동쪽의 아시아 전역으로 규정하여 현대 여성 복식에 있어 동양모드의 변화과정을 살펴보았다.

## II. 일반적 고찰

### 1. 용어의 정의 및 개념

일반적으로 동양(The Orient)이라 하면 지리적으로 볼 때, 서양(The Occident)에 대응되어 위치한 세계의 동쪽지역을 일컫는 말로서 현재는 터키 동쪽에 있는 아시아 여러 나라를 통틀어 말하며, 지중해 동쪽의 아시아 국가, 특히 동아시아 국가를 가리키기도 한다.<sup>3)</sup>

모드(Mode)는 영어에서는 '방법'이나 '양식' 또는 패션(Fashion)과 같이 '유행'이라는 의미<sup>4)</sup>로 사용되며, 불어에서도 '유행'을 의미한다. 프랑스의 라우스 소사전(Petit Larousse)에는 시대의 취미, 기호에 따라 생활이나 의복 양식을 정하는 일시적인 풍속으로 정의하고 있다.<sup>5)</sup>

따라서, '동양모드'란 터키 동쪽 아시아 지역들의 민속적 또는 민족적 특징과 요소가 현대 패션 디자인의 외적·내적 요소로 나타나 유행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현대 패션에 반영된 동양적 특성의 외적(형태, 색채, 소재·문양 등)표현 뿐만 아니라 내적 사상이나 가치, 의미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으로, 동양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스타일이나 룩 역시 동양모드라 한다.

'동양풍'<sup>6)</sup>이 나왔다 사라지는 일회성의 의미를 지닌다면, '동양모드'는 선택과 수용의 단계를 밟은 비교적 안정되고 체계화된 양식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현대 패션에 지속적이며 뚜렷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동양적 요소 및 스타일 그리고 그 이미지 표현까지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용어라 하겠다.

### 2. 동양모드의 형성배경

서양복식에 동양복식의 특성과 요소의 전파는 역사적으로 로마시대 이래 있어 왔음을 복식학자 Payne<sup>7)</sup>, Crawford<sup>8)</sup> 등은 지적하고 있으며, 기원전

2세기경부터 실크로드(silk road)를 통한 중국 실크의 전래, 11~13세기의 십자군 전쟁, 16~17세기 지리상의 발견 및 동인도 회사의 설립 등은 서양복식 문화에 대한 동양복식 문화의 전파와 수용에 기폭제가 되어왔다.

그러나, 이들 시기에 이루어진 동양복식 문화의 영향은 복식의 형태보다는 주로 직물이나 의복의 장식에 나타난다. 즉, 사용된 직물의 종류가 유행을 결정하던 때였고 아직 동양복식을 수용할만한 사회 문화체계가 형성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동양의 새로운 직물과 풍부한 색의 염료는 보다 적극 수용되어 서양복식을 더욱 화려하고 고급스럽게 만들었으며, 결과적으로 서구 직물산업의 질적 향상과 발전을 가속시켰다. 그러나 이를 수요할 수 있는 계층은 한정되어 있었고, 동양풍은 유럽귀족과 성직자, 부르주아 같은 특권층의 상징과 전유물로서 이국적 취향을 만족시키는 데 그쳤다.

이후 서구 제국주의 정책이 심화되면서 대중의 관심은 자신들의 군대가 진출하는 동방 세계로 옮겨갔으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만국박람회가 개최되면서 더욱 절정에 이르렀다. 1851년 런던에서 최초로 열린 만국박람회는 전 세계 산업 유통의 장이자, 전시품을 통해 이질문화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1867년 파리 만국박람회에 참여한 일본은 최초로 부세회(浮世繪), 칠기(漆器), 도기(陶器), 시회(蒔繪), 기모노, 직물 등을 전시함<sup>9)</sup>으로써 일본 문화와 생활을 유럽에 널리 소개하였다. 또한 1875년 일본, 중국, 인도, 페르시아 등지의 동양 상품을 수입 판매하는 'Liberty House'가 런던에 문을 열어 대단한 성공을 거둠으로써<sup>10)</sup> 패션의 변화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19세기에 들어, 동양 문화의 영향은 복식을 비롯하여 건축, 가구, 공예, 실내 장식, 장신구 등 서양인의 의식주 전반에 나타났다. 이로써 과거 일부 상류층에 국한되었던 동양풍은 확산되었고, 다수의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수용되기 시작한다. 이 시기를 동양모드 형성의 잠재기이자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현대 동양모드는 20세기 초, 전문디자이너가 기업화된 생산 시스템 속에서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신문, 잡지 등의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대량생산과 소비의 실현으로 구체화되고 빠르게 진행되었다.

### Ⅲ. 동양모드의 전개과정

20세기 동양모드를 주요 시대별 특징으로 분류하여 보면, 1900-1950년대까지의 동양모드는 서구 제국주의적 관점으로 표현된 '오리엔탈리즘' 복식으로 규정될 수 있으며, 1960-1970년대는 멀리 이국의 민속 복식으로 초점이 이동하게 되는 '포클로어 오리엔탈리즘'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 1980년대는 비기독교권 지역의 민족의상의 미적 특징을 현대 패션 디자인에 반영하는 '에스닉' 현상이 두드러진 시기이며,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세기를 준비하는 1990년대 나타난 동양모드는 동·서양적 요소가 대등한 위치에서 혼합·절충되는 '퓨전'으로 보여진다. 또한, 1990년대 말 부각되어 동양적 가치관으로의 전환을 이룬 간결한 표현의 동양모드는 '젠'으로 규정하여 현대 동양 모드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겠다.

위와 같은 용어들은 각 시대별 패션의 성격과 특징을 상징한다. 따라서 오리엔탈리즘-포클로어 오리엔탈리즘-에스닉-퓨전-젠이라는 용어의 변천에는 동양모드의 의미와 위치 변화과정이 함축적으로 나타나 있다.

#### 1. 1900~1950년대 오리엔탈리즘 (Orientalism)

##### 1) 오리엔탈리즘

근세유럽에 있어서 문학·예술상의 한 풍조로 나타난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은 서양의 문화 속에 그들과 전혀 다른 이질적인 동양취미가 등장할 때 불리어진 용어로 동방 세계에 대한 동경을 표현상의 동기 또는 제재(題材)로 삼아<sup>11)</sup> 나타난 동방취미(東方趣味), 동방적 정서, 동방적 예술의 애호를 말하며, 특히 근세 유럽에 있어서 19세기 낭만주의의 한 경향인 이국취미(Exoticism)를 대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동양애호 성향은 서구 제국주의적 오리엔탈리즘의 발흥과 시기적으로 맞물려 있다.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W. Said)는 동양에 대한 서양의 모든 유형의 접근 방식을 일괄적으로 제국주의적 오리엔탈리즘이라고 부르고, 동양이 유럽의 '실질적인' 문명과 문화의 구성 부분임을 지적한다. 다시 말해, 오리엔탈리즘은 동양을 지배하고 재구성하며, 위압하기 위해 창조된 하나의 사고 방식이자 이론 및 실천체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오리엔탈리즘은 20세기 초 경제적 발전을 배경으로 한 서구 열강들의 제국주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더욱 뚜렷하게 표현된다.

현대 패션디자인에 있어 오리엔탈리즘이란 동양의 풍물과 정서에 대한 흥미나 호기심에서 비롯된 제국주의의 산물 또는 상업적인 동기로서 동양을 단순한 기표로 사용하고 이를 복식에 반영한 어디까지나 서구 중심적 관점의 복식디자인을 의미한다.

2) 복식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 :

19세기 잠재적인 형태로 등장했던 오리엔탈리즘<sup>12)</sup>은 20세기에 들어 명백한 유형의 접근방식을 보이면서 사회, 문화 전반에 강한 영향을 미치었다.

특히, 복식 디자인에 있어 많은 상상력과 영감을 불러넣어 주었으며 동양 복식의 다채로운 색감과 구성, 기하학적 단순성 등의 특성과 미는 현대 복식을 창조하는 밑바탕이 되었다.<sup>13)</sup>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의 복식 이면에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동양을 지배하고 재구성하기 위한 서구 제국주의적 사상이 내재되어 있다. 현대 동양모드의 선구자적 역할을 한 뽀아레(Paul Poiret)의 작품에도 오리엔탈리즘은 뚜렷이 나타난다. 1906년에 뽀아레는 'Confucius(공자)'라 칭한 기모노 코트를 발표하였다.<사진 1> 그러나 그 코트는 전통적인 기모노와의 유사성이 거의 없다. 즉, 일본 전통 복식에 대한 정보 없이 그 이미지를 차용하여 사용하거나 부분적인 요소를 발췌하여 재구성하는 가시적인 혼합양식을 보인다. 1911년에 뽀아레 주최로 열렸던 '아라비안 1002夜話 파티'에서 마담 뽀아레가 입었던 램프갓(lampshade) 모양의 금술이 달린 파고다 튜닉(pagoda tunic)과 하렘바지(harem pants), 새 깃털 장식(aigrette)이 있는 터번 역시 지나치게 화려한

장식으로 내재적 의미는 부재한 채 사치스럽고 관능적인 소비욕구를 자극하며 동양을 상품화하였다.<사진 2> 또한 그의 하렘 바지와 미나렛 스타일은 회교도의 여자 노예를 연상시킨다.<sup>1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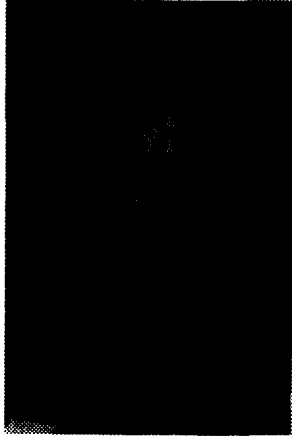
<사진 1> 'Confucius' 코트  
Paul Poiret (1906)



<사진 2> '1002夜話파티'에서의 마담 뽀아레  
Paul Poiret(1911)

이렇게 동양을 언제나 꿈과 신비에 둘러싸인 마술적인 아름다움의 세계로 표현함으로써 현실도피를 위한 안식처로 간주하거나 예곡, 미화의 과정을 거쳐 신비적 타자로 대상화하였다. 또는, 지나치게 화려한 장식이나 원시적인 표현으로 동양을 야만적이고 미개한 비문명지로 차별하여 표현하기도 한다. 오리엔탈리즘은 뽀아레 이후 1931년 파리 식민

지 박람회(Paris colonial exhibition)를 통해 다시 부활되었고<sup>15)</sup> <사진 3>, 2차 대전을 전후로 이전만큼 많이 나오지는 않았다. 이렇듯 복식에 서구의 우월성이 적극 반영되었다면, 시대를 불문하고 오리엔탈리즘 복식이라 할 수 있다.



<사진 3> 새를 수놓은 새틴 재킷  
Alix Grés (1936)

## 2. 1960~1970년대 포클로어 오리엔탈리즘(Folklore Orientalism)

### 1) 포클로어 오리엔탈리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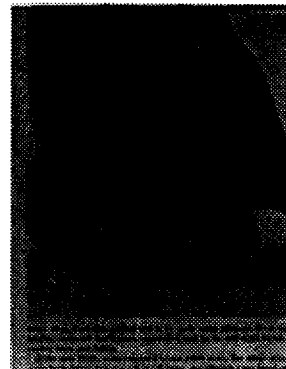
포클로어(folklore)는 민속학, 민간전승이란 뜻으로 의상학에서는 민속풍의 옷을 말하며,<sup>16)</sup> 기독교 권 민족이 갖는 특유한 민족 스타일을 지칭하기도 한다. 즉, 지역의 풍토, 자원 그리고 생활에 밀착되어 고안되고 자연히 생겨난 의복들을 의미한다.

포클로어 오리엔탈리즘이란 서구인들이 자신들의 고유 의상에 대한 관심을 동양의 민속복식으로 이동하면서 나타난 이 시기 동양 스타일의 복식들을 일컫는 말이다. 이는 포클로어의 한 부분으로 나타나면서 오리엔탈리즘의 영향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동양의 문화에 대해 깊이 있고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 시점이 되었다. 따라서 동양모드는 과거 서양 패션의 종속적인 위치에서 점차 탈피하게 되면서 독립적인 패션의 테마로 나타나게 된다.

### 2) 복식에 나타난 포클로어 오리엔탈리즘

1960년대 동양모드는 포클로어라 불리어지며 크게 붐을 일으켰다. 포클로어의 근원은 1960년대 말 히피의 영향으로 인도, 티벳 등의 민속의상이 주목되면서 부각되기 시작했다. 당시 미국에서는 히피라는 하위문화가 형성되었으며, 이들은 서구문명에 대한 반발, 기성세대에 대한 저항, 반전 운동(anti-war)을 벌이면서 동양사상과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갖고 힌두교의 로브, 네루 재킷(nehru jacket), 수도승의 튜닉, 제 3세계의 민속 의상과 장신구 등을 착용하였다. 복식을 포함한 히피문화는 1960년대 후반에 확산되었고 1970년대 들어 대중시장에서도 상업화되었다.

이 시기에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인 입 생 로랑(Yves Saint Laurent)은<sup>17)</sup> 유럽의 민속복과 동양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들을 발표하였으며, 1970년대 다카다 겐조(Takada Kenzo)가 포클로어를 컬렉션의 테마로 삼으면서 포클로어 오리엔탈리즘은 본격적으로 패션의 주제가 되기 시작하였다.<sup>18)</sup> 또한 일본 디자이너들의 파리 진출 및 중·미 수교는 민속복식조의 장식적인 오리엔탈리즘 유행을 확산시켰다. 이는 의복 스타일 뿐 아니라 헤어스타일, 화장 및 장신구에까지 영향을 주어 이들 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나막신 형태의 플랫폼 소울(platform sole) 신발이 등장하였다.<사진 4> 1974년 5월 미국 VOGUE지 표지에는 금박의 페이즐리 문양이 프린트된 강렬한 색채와 문양의 화려한 동양 스타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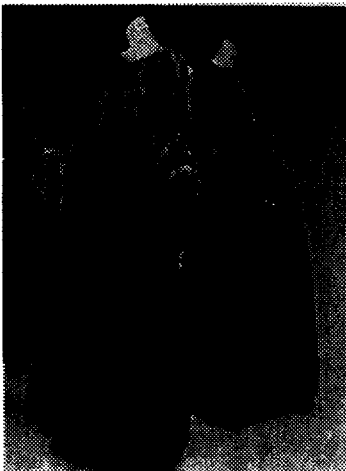
<사진 4> David Evins(1972)  
「New York Fashion」 p.241

등장하기도 하였다.<사진 5> 또한, 입 생 로랑은 1976년과 1977년에 러시아 코삭크(Cossack)풍, 집시(Gypsy)풍, 인도풍 등 각 국의 포클로어를 혼합한 판타지 룩(Fantasy Look)을 발표하여 큰 호응을 받았다.<사진 6>

이러한 유행 경향들은 멀리 이국의 민속복식으로 초점을 이동하는 계기가 되어 현대 복식에서 포클로어 오리엔탈리즘을 형성하게 되었다.



<사진 5> Purist Jean Muir(1974. 5)  
『VOGUE : Twentieth Century Fashion』 p.64



<사진 6> Yves Saint Laurent(76-77 F/W)  
『Haute Couture』 p.40

### 3. 1980년대 에스닉(Ethnic)

#### 1) 에스닉

에스닉(Ethnic)은 '민족의', '종족의' 또는 '민족 특유의'라는 의미의 형용사로 에스닉 룩은 민족복을 말하며 유럽 민족 외에 세계 여러나라 민족 고유의 복장을 힌트로 한 것을 가리킨다.<sup>19)</sup> 에스닉 룩은 민족의상 그 자체와 염색, 직물, 자수 등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포클로어가 민속적인 것이라면 에스닉은 좀 더 토속적이고 비교적 원형이 그대로 간직된 상태이다.<sup>20)</sup> 일반적으로 에스닉은 비기독교권, 즉 이슬람교, 불교, 기타의 종교를 갖는 지역, 구체적으로 아시아를 중심으로 하여 잉카 등의 고대 남아메리카나 아프리카의 민족 스타일로 생각되며 그 중에서도 민간 전승적인 스타일 즉 프리미티브한 경향이 보이는 것을 에스닉이라고 한다.<sup>21)</sup> 따라서 중·근동의 종교적인 의상, 인도네시아의 바틱, 인도의 사리에서 잉카의 기하학적인 문양까지도 포함된다.

1980년대 동양모드는 민족복의 미적 특성을 그대로 현대 패션 디자인에 반영하는 에스닉의 한 흐름으로 나타나면서, 1970년대 포클로어 오리엔탈리즘보다 그 영역이 확대된다.

#### 2) 복식에 나타난 에스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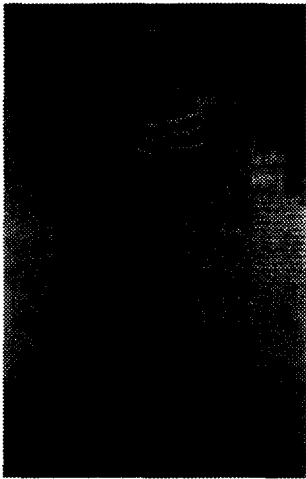
1980년대 패션은 세계 각국의 복합된 문화의 표출과 새로운 디자이너들의 대거등장으로 더욱 다양하고 빠른 속도로 변모하였다. 특히, 비서구 문명과 전통 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면서, 자연의 흐름과 정신에 바탕을 둔 동양의 전통복식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들이 에스닉 룩으로 등장하였다.

1980년대 초반에는 일본의 경쟁력 강화와 중국의 문호개방 등으로 동양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에 발맞춰 동양풍의 의상이 많은 디자이너들에 의해 발표되었다. 이때에 일본 디자이너들은 좀 더 발전된 형태의 '재패니즈 룩(Japanese Look)'을 유행시켜 일본의 민족복을 기조로 한 모더니즘의 미학을 추구하였다.<sup>2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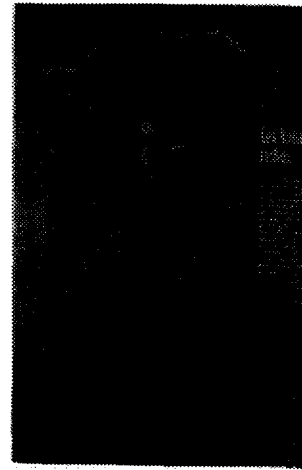
또한, 에스닉은 중·근동 지방의 민족의상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풍성한 드레이프와 화려한 장식의

작품들이 많이 보여진다. 프랑스 패션 정보지인 'Les cahiers de tendance de promosty'에는 1980년대 동양풍의 경향을 화려한 자카드 원단의 사용, 정열적인 색상, 드레이프성을 강조한 모자와 두건, 몸을 휘감아 둘러싼 랩(Wrap), 루즈 룩(Loose Look)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sup>23)</sup> <사진 7, 8> 즉, 신체를 구속하지 않는 드레이프 스타일이나 트라페즈 라인, 박스 스타일 등 매우 단순한 형태이며, 다양한 칼라와 소재, 트리밍, 그리고 금, 은 보석 등으로 화려하게

꾸며진 악세사리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sup>24)</sup> <사진 9> 에스닉 스타일은 패션에 있어서 피상적인 이미지 표출 뿐 아니라 문양, 색채, 세부 장식, 착장 방법 등에 이르는 복식의 외적 표현과 지역적 특성을 지닌 고유한 문물까지 적극적으로 탐구·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인류의 근원을 찾는 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과 함께 민족과 지역을 초월하는 일체감을 표현하고 있다.



<사진 7> Christian Lacroix  
『Vogue Paris』 1989. 2



<사진 9> Christian Lacroix  
『Vogue Paris』 1989. 2



<사진 8> Yves Saint Laurent (1988)  
『Yves Saint Laurent : Exotismes』 p.78

#### 4. 1990년대 퓨전(Fusion)

##### 1) 퓨전

퓨전(Fusion)은 '이종교배, 융합, 융해'라는 의미로<sup>25)</sup> 서로 다른 성격의 장르나 재료가 어울려 독특한 분위기의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 내는 영역간의 상호교류 및 탈경계화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절충안적인 해결방식이 되고 있는 퓨전 문화는 들 이상 의 문화가 섞여 생성된 제 3의 문화를 일컫는 제설(諸說) 혼합주의(syncretism)로 표현되기도 한다.<sup>26)</sup>

퓨전은 기존 규범이나 고정된 질서로부터 벗어나려는 신선한 개척정신이다. 퓨전은 이종교배를 통해 지속적으로 탄생하는 변종이며, 지속성이 결여될 수 있는 가변적 특성을 가지는데, 그것보다는 극단적으로 이질적인 것, 발전의 포화와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들을 화해시키고 혼합하여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해 낼 수 있는 가능성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sup>27)</sup>

결국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세기를 준비하고 있는 현재의 인류는 인간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양면적이고 이중적인 모습들을 끄집어 내어 새로운 조화 속에 공존시킴으로써 지배적 가치가 붕괴된 혼돈의 세기말을 극복하고 인간 본성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되찾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며, 인간에게 가장 밀착되고 생생한 표현이 가능한 패션에서 퓨전 현상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 2) 복식에 나타난 동·서양 퓨전

패션에서의 퓨전은 보다 근본적인 의복의 특성들이 서로 교류하는 것 즉 남성복과 여성복의 특성 교류에 의한 새로운 형태와 분위기의 연출, 시대적 감각의 융합, 동·서양의 지역적 특성의 교류 등 의복에 나타나는 이질적이고 상호 대립적인 요소가 함께 보여지는 모든 경우를 지칭한다. 이는 부정과 전복의 해체적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립적 요소를 양립시키며 합성하는 새로운 절충안의 제시를 의미하게 된다.

동·서양적 특성과 요소가 대등한 위치에서 공존하게 된 1990년대 동양모드는, 서로의 문화를 인정하고 절충하여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하는 퓨전으로 설명된다. 즉, 동양복식에 서양복의 기능적 형태나 구조를 받아들이거나, 서양복식에 동양복식의 색채나 소재, 문양 또는 장신구 등의 요소를 도입하여 나타냄으로써 상호 통합·발전 관계를 이룬다.

이렇게 동·서양 퓨전을 시도한 작품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동양적 소재와 문양의 도입이다. 즉, 청바지에 밑단에 진홍색 실크를 덧대거나 화려한 비즈(beads) 장식 또는 동양적 문양의 수를 놓음으로써 서구문화의 대표적 상징인 청바지는 국적을 잃는다.<사진 10> 또한, 서구 복식에 동양적 감성과 정서를 부여하기 위해 '한자'와 같은 동양 문자를 상징적으로 차용하기도 한다.<사진 11>

이러한 현상은 주변적인 것으로 치부되던 서유럽 이외 지역의 고유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자각,

가치발견을 가능케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서로 다른 성격의 문화가 어울려 독특한 분위기의 새로운 미의식이 창조되었다.



<사진 10> 박지원, There's  
『Bazaar Korea』 2000. 2



<사진 11> Dolce & Gabbana  
『Bazaar Korea』 1999. 10

## 5. 1990년대 말 젠(Zen)

### 1) 젠

젠(Zen)은 동양 불교, 선(禪)을 일본식으로 발음한 것<sup>28)</sup>으로 서구에서 먼저 받아들여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의 패션과 인테리어, 음식과 음악 등에서



순수, 자연, 정신주의 등의 개념을 상징하는 트렌드로서 지지를 얻고 있다. 이는 장식성을 최대한 내버린 간결함, 흑백주조의 모노톤, 정(靜), 여백 등<sup>29)</sup> 동양의 미(美)로 그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젠의 유행현상은 20세기 후반부터 제기되어 온 생태학이나 환경문제에 대한 재인식과도 결부되어 있다. 또한 빠르게 변해 가는 문명사회에 대한 위기의식, 스트레스 등으로 현대 사회의 물질문명 속에서 잃어 가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철학적 태도로써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젠은 과장된 장식과 복잡한 생활에 염증을 느끼는 현대인들에게 자연을 살린 단순 간결한 형식미로 다가온 것이다. 이는 차갑고 이지적인 서양의 미니멀리즘과 비교해 볼 때 인위적인 장식을 배제하고 간결함을 추구한다는 점은 같지만 그보다 더 따뜻하고 인간적인 면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복식에 나타난 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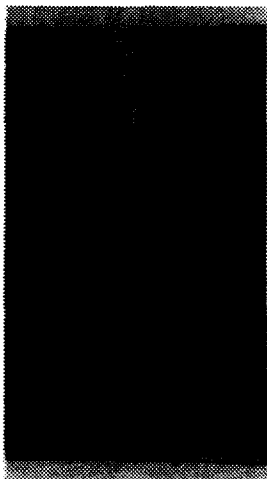
젠이 가장 두드러진 분야는 역시 패션이다. 이미 파리나 밀라노의 99년 컬렉션에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된 '젠'은 극도로 절제된 선과 색에 동양의 정신적 가치를 담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사진 12>

이미 3년 전에 미니멀한 젠을 소개해 유행을 선도하고 있는 디자이너 정구호는 "옷의 모양보다 그

구조에 관심이 있다"고 말한다. <사진 13>은 그의 블랙 롱 드레스로 어깨에서 이어지는 긴 스카프가 달려 있어 솔처럼 두르거나 늘어뜨릴 수 있는 디자인이다. 따라서 입는 사람에 의해 그 형이 결정되는 가변적인 스타일로 절제된 가운데 은근한 변화를 추구하는 젠의 정신과 '비움의 철학'이라는 공간감이 담겨 있다.



<사진 13> 정구호  
『Bazaar Korea』 2000. 2



<사진 12> Carolina Herrera  
『Fashion Show』 99-00 A/W



<사진 14> Yves Saint Laurent  
『Fashion Show』 99-00 AW

99-00 A/W 컬렉션에 등장한 입 생 로랑의 실크 원피스 역시 절제된 실루엣에 블랙의 가는 허리끈

으로 포인트를 준 디자인으로, 밝은 색상임에도 불구하고 장식을 배제한 간결한 형태와 최소한의 공간만을 차지하는 허리끈에서 여백의 미가 느껴진다.〈사진 14〉

이렇게 패션에서의 젠은 천연 섬유, 절제된 색, 그리고 인체에 대해 가장 기본적이고 간결한 실루엣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는 복식의 형태 뿐 아니라 동양의 정신까지도 깊이 받아들임으로써 현대적 삶에 새로운 가치관을 부여한다. 그리고 이러한 젠 스타일은 새기말을 넘어 21세기를 향한 현대패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패션으로 부각되고 있다.

#### IV. 결론 및 제언

고대부터 이루어진 동서양 문화의 접촉과 인식, 그리고 교류는 복식 문화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으며, 특히 현대에 이르러 그 양상은 더욱 다양하고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대 동양모드를 체계적으로 정리 분석하고 그 변화과정을 통해 점차 동양복식이 서양 패션의 주요 주제로 등장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는 또한, 동양모드의 현 위치를 재조명해봄으로써 동양모드가 생명력 있는 패션의 고전으로 거듭 성장 발전하기를 기대하는 의미에서 수행되어졌다.

현대 동양모드를 주요 시대별 특징으로 나누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00-1950년대는 경제적 발전을 배경으로 한 서구 열강들의 제국주의 경쟁이 심화되었던 시기로 명백한 형태의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을 보인다. 즉, 동양의 풍물과 정서에 대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제국주의의 산물 또는 상업적인 동기으로써 동양을 단순한 기표로 사용하고, 이를 서구 중심적 관점의 복식 디자인으로 반영한 오리엔탈리즘 복식으로 규정되었다.

둘째, 1960년대 서구의 기계화, 정형화에 반기를 들고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히피운동의 영향에서 비롯된 민속의상에 대한 관심이 1970년대 이국의 민속복식으로 초점이 이동되면서 이 시기 동양모드는 포플로어 오리엔탈리즘(Folklore Orientalism)을 형

성하였다.

셋째, 1980년대는 비서구문명과 전통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면서 비기독교권 지역의 민족의상의 미적 특징을 현대 패션디자인에 반영하는 에스닉(Ethnic) 현상이 두드러졌다. 특히, 중·근동 지방의 민족복식이 주목받았던 시기로 동양모드는 에스닉의 한 흐름으로 보여졌다.

넷째, 1990년대 동양모드는 기존의 영역들이 서로 교류하고 융합하는 퓨전(Fusion)의 형태를 이룬다. 즉, 동양복식에 서양복의 기능적 형태나 구조를 받아들이거나, 서양복식에 동양복식의 색채나 소재, 문양 또는 장신구 등의 요소를 도입하여 나타냄으로써 상호 통합·발전 관계를 이룬다.

다섯째, 1990년대 말에 나타난 동양모드는 젠(Zen)으로, 과장된 장식과 복잡한 생활에 염증을 느끼는 현대인들에게 자연을 살린 단순 간결한 형식미로 다가왔다. 이는 천연 섬유, 절제된 색, 그리고 인체에 대해 가장 기본적이고 간결한 실루엣으로 표출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 20세기 초 동양모드는 서구 중심적 사고의 종속적인 모습으로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이름 아래 서양 패션의 일부분으로서 등장하였다면, 1960년대부터는 다른 문화권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더불어 하나의 테마로 부각되어 나타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후 1990년대에 이르러서 서양 패션과 대등한 위치에서 절충적 현상을 보이다가 1990년대 말 '젠'으로 형태 뿐 아니라 동양의 정신까지도 깊게 받아들임으로써 동양모드는 서양 패션의 주요 주제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동양모드의 변화 양상은 그 의미를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용어의 변화로도 뚜렷하게 확인된다. 이는 과거 서양과 기타라는 모더니즘적 양분법이 아닌 서로의 양식과 개별성을 인정하고 이를 활용하고 혼합하는 다원적 문화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20세기 후반부터 제기되어 온 생태학이나 환경문제에 대한 재인식과도 결부되어 있다.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동양복식의 형태미는 감성적이며 인간적인 친근함을 준다. 인체의 형태에 구속받는 서양복식이 그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형태

에 집착하는데 비하여 동양모드는 자유롭고 여유가 있으며(사진1,2) 자연의 정서가 생생한 문양과 색채는(사진4,5,6) 보다 서정적이다. 이와 같이 인체와 복식 그리고 자연을 분리하지 않음으로써 나타나는 비 구조적이고 가변적인 형태가 젠 스타일을 통하여 다듬어지고 생략, 절제되어 은유적으로 표현되었을 때(사진12,13,14) 보여지는 우아함과 깊은 품위는 현대패션에 등장한 동양모드의 역사가 일구어낸 하나의 완성이라 하겠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 있다. 패션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으며 지금의 동양모드는 언제 다른 유행으로 대체될지 모른다. 이에 현재의 동양모드가 한시적인 유행현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통찰이 필요하다. 즉, 동양의 다양한 패션화 요소를 개발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여 젠을 이을 새로운 동양모드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패션의 관심이 동양, 특히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패션에 동양모드가 나타날 때 오리엔탈리즘, 에스닉, 포클로어 등의 용어가 정확한 개념의 구분 없이 혼용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각각의 의미는 제대로 파악되어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특히 서구의 동양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시각을 담은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용어는 뚜렷한 검증 없이는 자체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고영란, "문화충돌이 빚어내는 역사의 변증법적 진화", 『월간디자인』, No. 266, Aug. 2000, p.38
- 이승환, "오리엔탈리즘을 해부하라", 『전통과 현대』, 겨울호, 1992, pp.216-218
- Edward W. Said, 『Orientalism』, Middlesex, England : Penguin Books, 1987, pp.1-2
- 『Si-Sa Elite Collegiate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서울 : 시사영어사, 1995, p.712
- 『복식대사전』, 서울 : 라사라, 1991, p.368
- 동양풍 : 동양적 특성이나 요소가 나타난 복식이 단기간 유행하는 현상으로 동양모드와 비교 해 볼 때 어감(語感)이 일시적이며 그 기간이나 범위도 좁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풍, 중국풍, 일본풍 등으로 어느 시대의 특정한 유행경향을 지칭하는 단어로서 사용되며, 20세기 전체에 나타나는 동양적 스타일이나 룩을 동양모드라고 표현한다.
- Blanche Payne, 『History of Costume』, New York : Harper & Row, 1965., 이종남, 안혜준, 김선영, 정명숙 (역), 『복식의 역사 - 고대 이집트에서 20세기까지』, 서울 : 까치, 1988, p.141
- M. D. C. Crowford, 『One World of Fashion』, New York : Fairchild Publications, Inc, 1967, p.18
- 深井晃子, 周防珠實, "モードのジャポニズム", 『衣生活研究』, Vol.20, No.5, 1993, p.5
- Guillermo De Osma, 『Fortuny : The Life & Work of mariano Fortuny』, NY : Rizzoli, 1994, p.92
- 『동아원색대백과사전』, 제 21권, 서울 : 동아출판사, 1983, p.286
- 박홍규 (역), 『오리엔탈리즘』 (Edward W. Said), 서울 : 교보문고, 1991, p.330
- 의상디자인에 있어 현대성(Modernity)를 확립한 디자이너로 Poul Poirt를 들 수 있다. \* 그의 작품에는 H-line의 단순한 실루엣과 직선적인 기모노 소매, 빨강, 초록, 노랑, 파랑 등의 강렬한 원색조의 색들이 등장한다. 이는 그가 활약했던 동시대의 아르데코(Art Deco)양식에 잘 부합되는 요소로써 이는 야수주의(Fauvism)과 입체주의(Cubism)으로부터 확산된 오리엔탈리즘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 De Marly, Diana, 『The History of Haute Couture 1850~1950』, London : Batsford Ltd, 1980., Milbank, Caroline Rennolds, 『Couture : The Great Designers』, New York : Stewart, Tabori & Chang, Inc., 1985
- 정홍숙, 『服飾文化史-서양복식사』, 서울 : 교문사, 1986, p.293
- François Boucher, 『20000 Years of Fashion』, New York : Harry N. Abrams, 1987, p.413
- 『복식대사전』, op. cit., p.62
- B. B. Baines, 『Fashion Revivals : from Elizabethan age to the Present day』, London : B. T. Batsford, 1981, pp.176-179
- 이영재, "오리엔탈리즘 복식 디자인 연구 : 고대 실크로드 문양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2, p.11
- 『복식대사전』, op. cit., pp.869-870
- 이영재, op. cit., pp.11-12
- 『Fashion Genesis』, Vol.73, pp.17-18., 이상례, "현대 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동방풍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1994, p.11, 재인용
- 이정아, "현대 여성복식에 표현된 에스닉풍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3, p.26

- 23) 이은정, "일본의 1980년대 Fashion Design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1, p.17
- 24) 송명진·양숙희, "현대 서양복식에 나타난 이국취향 (Exoticism)에 관한 연구", 『복식』, 1992. 5, p.300
- 25) 류호창, "新 문화코드, 퓨전", 월간 디자인, No.260, 2000. 2, p.127.
- 26) 류호창, op. cit., p.124.
- 27) 김민정, "20세기말 패션에 나타난 Crossover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5, p.5
- 28) 김민경, "禪문화-젠! 젠! 젠! 다시 부는 神風", 『주간동아』, No.210, 1999. 11. 25, p.82
- 29) 이준호, "'禪의 멋'- 젠 스타일", 『조선일보』, 2000. 2. 8.